

special theme

Welcome to the

From comfort to nature,
a Korean traditional house,
or hanok,
has everything you need.
The house breathes in its elegant frame,
together with nature and human beings.
It is not just a house.
It grows with the people in it.
No wonder it is often called the most beautiful
house in the world.

‘hanok’ life





special theme

Slow and

A walk around Bukchon village turns back time.
The moment you step into the village, your time will flow on a slower pace.
Naturally, you'll find yourself walking at a slower pace,
admiring flowers in the garden, gazing at the passage of time at the end of eaves
and listening to the stories of grannies in
a corner of an alley.

stead around Bukchon

EDITOR
YEO HAYEON

PHOTOGRAPHER
SOO JIN, YIM MINCHEOL



‘더 커피빈 티앤 리프’라고 한글로 써 있는 다소 낯선 간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라는 한글 간판으로 되어 있는 가회동 커피빈은 마치 또 다른 세상으로 이끄는 하나의 이정표 같다. ‘여기서부터 마음을 꼭 놓으셔도 좋습니다. 북촌이거든요.’

북촌으로 들어서자, 종각에서 불과 10여 분 떨어져 있을 뿐인데 시간을 넘어 먼 과거로 순간 이동이라도 해온 것처럼 한갓지다. 슈퍼마켓과 쌀가게, 미용실, 목욕탕, 분식집, 문방구, 양장점. 작은 가게들이 아기자기하게 줄지어 늘어선 풍경은 초등학교 시절 보던 동네 골목길과 닮았다.

10년 전만 해도 ‘부천도 북촌도 아닌 북촌이 어디야?’ 고개를 가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2, 3년 전부터 북촌 한옥마을은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로 떠올랐다. 누군가에게는 생의 터전인 곳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문화 콘텐츠나 관광지가 되는 것은 생경한 일이다. 한옥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주거 공간에 불과하던 한옥이 외국인뿐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문화 콘텐츠가 되고 있다.

북촌은 가회동, 삼청동, 원소동, 재동, 계동, 인사동, 시간동에 이르는 다소 넓은 구역을 통칭한다. 청계천을 경계로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계천 남쪽에 자리하던 남촌이 하급 관리들과 가난한 선비인 딸각발이들의 주거지였다면, 북촌은 상류층 양반들의 주거지였다. 북촌은 예부터 별이 잘 들었고 배수도 잘됐다고 한다. 도성의 주임에 있어 왕실의 종친과 힘깨나 쓴다는 세도가, 벼슬아치, 팔도 각지에서 올라온 양반들이 모여 살았다. 하지만 조선조가 무너지면서 북촌의 영화도 시들었다. 관직을 잃은 북촌 주인들은 저택은 물론 식솔조차 거느리기 어려워 행랑채 하인과 식객을 내보냈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모두 내다 팔았다. 우정국 주변에 골동품 매매 상점이 생겨, 인사동의 기원이 된 것도 이때다.

현재 북촌 일대에는 900여 채의 한옥이 있다. 가회동 인근 한옥의 대부분이 1930년대를 전후해서 들어선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고관대작들이 살던 북촌의 대저택들 대부분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중소 규모의 한옥들이 들어섰다. 현재 남아 있는 한옥은 전통 한옥이 아닌 집장사 집 혹은 서양식과 일본식이 가미된 변형 한옥이 많다. 현재까지 한옥의 개발과 리모델링 등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북촌은 여전히 고즈넉하다. 낡은 한옥도 새로 단장한 한옥도 그런 대로 어우러져 북촌다운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하늘 높아 보이는 어느 가을날, 북촌에 들어섰다면 그때부터 당신의 시간은 천천히 흐를 것이다. 굵이굵이 세월이 처마 끝에 달려 있고, 담벼락에 핀 채송화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골목길 평상에 할머니들이 아이스케키를 먹으며 수다를 늘어놓는 풍경에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느려진다.

삼청동에서 정독도서관을 지나 계동, 가회동에 다다르면서 북촌 산책은 이어졌다. 북촌문화센터에서 곧게 뻗은 길이 계동길이다. 슈퍼마켓과 미용실, 목욕탕, 작은



special theme



공방 등이 몰려 있는 계동은 북촌 중에서도 가장 소박한 정취를 풍긴다. 철 지난 옷이 걸려 있는 양장점과 스타의 얼굴이 코팅된 책받침을 파는 문방구. 길가에 내놓은 고추와 화분들이 그 옛날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곱게 늙은 동네 할머니들이 굽은 등으로 가파른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뒷모습은 한옥에 살며 여러 형제를 키워낸 우리네 할머니를 떠오르게 한다. 토박이가 많은 북촌에는 노인들이 자주 눈에 띈다. 사람 사는 동네일 뿐인데 왜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신기한 듯 구경을 오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외지인에게 경계의 눈초리 없이 쉬어가라며 평생 한쪽을 내미는 두드러진 인심이 있는 동네가 바로 계동이다.

한옥 체험관을 지나 계동길 끝자락에서 중앙고등학교를 끼고 왼쪽으로 2번 꺾으면 작은 골목길이 나온다. 한옥이 마주 선 골목에서는 디카족과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이곳이 바로 북촌 한옥마을이다. 재동초등학교에서 감사원 방향으로 길을 걷다 만나는 한옥 군락. 왼쪽 일대가 가회동 31번지이고 오른쪽이 11번지다. 어느 쪽이든 한옥의 진수를 맛보기에는 모자람이 없다. 제법 너른 아스팔트 도로가 있어 인도를 따라 한가롭게 산책을 하기에 좋다. 길 양편으로 단아한 한옥이 마주하고 있는 가회동 31번지는 계동과는 또 다른 고즈넉하면서도 우아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언덕길을 올라가면 한옥 지붕 사이로 펼쳐지는 서울 시내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처마와 처마가 만들어내는 곡선과 중첩된 기와가 독특한 그림을 펼쳐낸다.

‘가회’라는 이름은 조선 초 북부 10방의 하나였던 가회방에서 유래했다. ‘즐거움 모임’을 뜻하는 가회라는 이름의 유래처럼, 가회동에는 즐거운 구경거리도 가득하다. 양호한 한옥군을 이루는 가회동 11번지에는 동림매듭박물관, 가회박물관, 한상수자수박물관 등 소박함과 전통이 살아 있는 북촌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많다. 산책을 하다가 다리가 아플 즈음이면 박물관 대청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기에 좋다.

되살아난 한옥

한옥을 경험하지 못한 20~30대에게 한옥은 민속촌이나 한옥마을에나 가서 보는 옛날 사람이 살던 집에 불과했다. 그런 한옥이 최근 주거 시설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옥 붐이 일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북촌 한옥마을의 한옥 중에 5%만이 전세 한옥인데 이마저도 남은 물량이 없다고 한다. 지난 7월에는 서울시에서 은평 뉴타운에 미래형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했다.

그래픽 디자이너인 로사는 지난해 겨울, 계동에 위치한 한옥에 동지를 들었다. “똑같은 모양새의 아파트가 갑갑하게 느껴져서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효자동 한옥에 사는 친구의 집을 보고 한옥에 반해버렸어요. 한옥의 좋은 점은 사계절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꽃이 피고, 비가 오고, 단풍이 들고, 눈이 내리는 풍경을 보면 자연과 한층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요. 마당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바비큐도 구워 먹으면 전원 생활이 부럽지 않죠. 한옥으로 이사하고 나니 정서적으로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한옥은 비움의 미학이





반영된 공간이다. 아무리 작은 평수라도 그 안에 작은 마당이 존재한다. 아파트가 한 평의 실내 면적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에 골몰할 때 한옥은 30~40평의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일부를 마당에 내어준다. 비움은 여유로 채워진다. 건축가 구만재는 한옥의 심플함을 칭송한다. “한옥은 문과 창문도 한지로 하얗게 도배해서 공간 자체를 하얗게 해두었죠. 한옥에서 그 옛날 선비들은 초만 켜고 공부했는데, 마당에 흰색 돌을 깔아놓으면 달빛이 반사되어 방 안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어요. 이런 방식으로 자연을 건축에 끌어들이는 거죠.”

한옥은 자연을 끌어들이는 뿐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집이다. 한옥을 이루는 재료들, 나무·돌·흙·종이는 자연을 물리적으로 가공해서 얻어진 것들이다. 비로 인공물을 이루고 있지만 자연물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는 약간 부풀어오르고 건조한 겨울에는 줄어든다. 살아 있는 나무처럼 조금씩 기둥이 틀어지며 서까래는 처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썩기도 한다. 그래서 한옥은 계절마다 돌봐주어야 한다. 한옥 지붕 위에 풀이 돋기 시작하면 기와를 손봐달라는 뜻이고, 회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면 주추가 약간 기울거나 벌레 먹은 기둥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다는 뜻이다.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엔 기와를 손봐야 하고, 겨울엔 창틀이 뽀뽀해져서 손봐야 한다. 또 한옥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 서까래가 이렇게 생겼네. 처마가 이렇게 생겼네. 계산된 시각이 아니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한옥의 매력이다. 안채와 사랑채가 나뉘어 있고 방과 방이 느슨하게 다시 분화되어 있지만 마당에 면한 툇마루와 안채의 대청은 가족과 단란한 대화를 가능케 한다.

모든 생활을 실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옥은 주거 공간으로 적당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한옥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바쁘고 각박한 도시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찾기 위해서일 것이다. 마당을 품고 있는 한옥은 밖과 안, 인간이 있는 곳과 자연이 있는 곳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다. 성냥갑처럼 네모반듯한 집. 사방을 돌아봐도 똑같은 아파트와 달리, 서까래, 처마, 문살, 문고리 등 직선과 곡선이 만나서 볼 때마다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고, 품고 있는 사람에 따라 천의 표정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한옥’이다. 보살펴주지 않으면 병들고 아프지만, 정성껏 돌봐주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해주는 집. 인간처럼 살아 움직이는 집. 비울수록 채워지고 나눌수록 커지는 집. 사람들이 한옥으로 등지를 트는 것은 남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태어났을 때와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인간의 회귀 본능 때문이 아닐까? 한옥은 가장 자연과 닮은 집이니까 말이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처마 끝에 걸린 그윽한 그림자를 감상하다 후드득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운치에 젖어드는 집. 무더운 여름날 대청마루에 큰 대자로 누워 자고, 겨울엔 온돌방에 숨어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집. 나도 한옥에 살고 싶다.

Hanok is

Hanok,
or Korean traditional house,
no longer belongs
to the past or to a dream.

It is a beautiful reality
for these people who built their own
hanok and live
in them.

alive

조전환 대목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수였다. 대학 입학 후 민중문화운동연합과 극단에서 활동하다가 강의실을 박차고 나오고, 노동 운동을 하다가 해고되고 막막했던 그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목수 일뿐이었다. 고등학생 시절 한창 허튼짓을 할 때 목수인 아버지는 농담 삼아 말씀하셨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할 짓이 목수밖에 없다.” 그런 그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목수가 되었다. 경복궁 복원 작업에 참여할 당시의 나이가 서른하나. 그곳에서 조 대목은 목수로서 배워야 할 것의 8할을 배웠다.

동네 목수의 꿈

동네 아저씨처럼 마음 푸근한 조 대목은 여전히 자신을 동네 목수라고 일컫는다.

“목수 중에서도 동네 목수가 왕이거든요. 설계도 하고, 현장 소장도 하고, 사람도 쓰고 다 하거든. 예전에 충청도에서 스스로를 ‘동네 목수’라고 소개하던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 동네 집의 70%는 다 내 손으로 지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득 그 어르신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네 목수라며 겸손하게 말하는 그는 국내 최초 한옥 호텔인 라궁을 지었다. 라궁은 기존의 수공업적인 한옥 건축 양식을 벗어나 모듈화된 설계와 목재의 표준화로 한옥의 현대화를 보여준 건축물이다. “서양 건축은 건축사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되는데 그들은 한옥을 몰라요. 한옥을 배우려면 5년 이상 걸리는데 이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옥을 씌어서 그

EDITOR
YEYO HAYEON

PHOTOGRAPHER
YIM MINCHEOL



Cho Jeonhwan

사람들 방식대로 소화할 수 있는 번역 작업이 필요했죠. 한옥에 대한 수치를 분석하고 그것의 법칙성을 만들어 프로그래밍 작업을 한 거죠.” 그가 개발한 3D 모듈링 시스템 덕분에 인력과 건축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정확도도 높아졌다. 오랜 노하우를 지닌 대목의 손끝에서 나오는 섬세한 꿀 맛은 훼손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부재를 조립하고, 결합된 서까래를 다듬는 것은 여전히 대목의 몫이다.

“한옥은 나무로 만들어요. 내 나이와 비슷한 나무, 나보다 오래 산 나무를 다루는데 사람이 그러하듯 나무도 자신만의 세월과 성격이 있어요. 나는 나무를 알아요. 친구와 친구가 아닌 사람, 타인과 나와 인연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철제는 똑같기 때문에 구조나 형상에 대한 고민만 하는데 목재는 어떤 방향에서 쓰고,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 세워놓느냐 눕혀놓느냐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거든요. 목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집주인과 만나고, 그 사람의 내력을 찾게 되고, 현재 위치, 앞으로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집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선 계속 공부를 해야 해요.”

20년간 한옥을 지어온 대목인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철학자와 대화를 하는 기분이 든다. 동양의 상수학, 고려와 조선의 역사, 동양 철학까지의 방대한 지식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먹을거리, 도시, 문명. 21세기의 화두는 ‘지속 가능한’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옥은 지속 가능한 집에 걸맞은 집이다. “자연의 이치를 보세요. 물이 있어서 나무가 크고, 나무가 있어서 불이 나고, 불이 나서 재가 흙이 되고, 흙이 굳어서 돌이 되고 돌 안에서 물이 나와요. 이것이 자연의 순환 체계죠. 그것을 반대로 배치함으로써 그 차이만큼의 쓰임새를 얻는 것이 바로 동양의 사고방식이고, 그것이 반영된 것이 바로 한옥이에요. 거기서 인간이 빠져버리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저 땅 위에 돌을 세우는 행위만은 아니다. 자연 조건과 집주인, 그리고 주변의 삶,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제대로 된 한옥이란다. 집을 완성하는 것은 집주인이다. 그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집으로서의 생명과 기능을 얻는 것. 오래 남는 집, 지속 가능한 집이 되기 위해서 그는 집주인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리산 아래에 있는, 오래된 집 중 하나인 운조루에 있는 뒤주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고 쓰여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거죠. 습기에도 약하고, 불화살 한 방에도 타버릴 수 있는 것이 한옥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집주인의 됬됨이, 사회적 위치, 가치관이 반영되었을 때 한옥은 오래 살아 있어요. 인생은 짧지만 한옥은 오래가요. 그 사람의 삶이 집으로 남는 거죠.”

사람과 또 자연과 함께 살아 움직이고, 자라는 집. 그게 바로 한옥이다.



special theme Interview

한옥에 사는 외국인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중에 데이비드 킬번 David Kilburn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일본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다가 1988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그때, 바로 한옥에 매료되어 쪽 살았다는 킬번. 그가 살고 있는 '한옥특별보전지역'인 가회동 일대가 투기꾼들의 전쟁터가 되면서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민원 고발을 하며 자신의 권리를 내세운 그.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어느 젊은 청부업자의 폭행이었다. 선조의 숨이 함께하는 한옥을 우리 손으로 부수고, 그것을 막는 사람이 영국인이라는 일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을 겪었지만, 한옥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킬번이 말하는 한옥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옥과 사랑에 빠지다

어떤 고급 맨션보다 한옥을 고집하는 그. 하지만 아무래도 주거 공간 양식이 많이 다른 서양인에게 한옥은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하게 유독 한국 사람들이 한옥에 살면 불편하지 않냐고 묻더군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중앙난방 시설, 인터넷, 위성 TV, 부엌, 욕실 등 현대 생활을 다 갖추고 있는데 말이죠. 오히려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대만, 스페인, 멕시코 등 여러 나라 출신의 제 친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었을 뿐 불편한 것이 없다는 그의 대답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접 살아본 경우는 드물지만, 선조의 생활 양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한옥. 하지만 이를 단순히 불편하다고 정의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편함'을 배제하고, 한옥을 관리하는 것 중 가장 열심히 하는 부분을 물었다. 문창호지를 바꾸는 일이라고 한다. 마치 대청소 같지만

David Kilburn

EDITOR
KIM HYEYOON

PHOTOGRAPHER
AN HYEONG-JUN, DAVID KILBURN



©An Hyeong-Jun



취미로 생각한다고. 풀로 창호지를 바르는 것이 즐거운 놀이 같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는 한옥을 자신과 같이 사는 친구로 생각해, 정을 나누는 행위이기도 하단다. 아파트에 살면서 집과 이런 정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한옥에 대한 무한 애정을 다시금 드러냈다.

이렇게 유쾌한 그의 '한옥살이' 중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일까? 먼저 한옥에 앉아 정원의 단풍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곱았다. 아침에 봉어가 사는 연못에 물을 마시러 오는 까치의 모습, 지붕으로 말려 올라가는 담쟁이덩굴 관리하기, 바람이 살짝 흔들고 가는 풍경 소리 등. 한옥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것들이 모여 큰 충족감으로 다가온다고.

그래서일까? 한옥의 특정 부분이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어우러진 한옥 자체가 장점이란다. 오픈 문화 행사를 열기에도 제격이라 작년에는 한국 전통 음악회를 5번 정도 열었다. 한국 수묵화, 한국 부채, 가야금이나 장고 등 악기를 수집하고, 한국 전통 가구로 집을 꾸며 한옥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킬번은 '우리가 집을 만들고 집은 우리를 만든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로 운을 떼며, "한옥은 시대를 거치며 한국인의 정신을 이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옥 같은 집은 없죠. 한옥이라는 공간의 조직은 유교 정신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유산을 파괴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이와 반대로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고유의 문화유산을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지역 사회도 이들을 잘 지켜줍니다. 건물은 역사의 흔적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증거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옥 보존 지역에서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라며 한옥의 본질적인 의미와 무분별한 개발을 꼬집었다. 고유 문화유산을 쉽사리 파괴하고 있는 한국인을 걱정하는 영국인 한옥 지킴이 데이비드 킬번, 우리 자신에게 조상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개성 없는 콘크리트 건물을 남겨줄 것인지를 되묻고 있다.



special theme Interview

단아한 서까래와 기와 그리고 소담한 마당을 가진 한옥이 변하고 있다. 한옥이라는 범주 안에 카페, 음식점, 치과 등 무궁무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하지만 한옥의 기본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전통을 간직한 채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하는 곳, 사간동 9번지. 여기에는 나정원, 김세희, 최윤정이 함께 살며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옥, 이야기를 품다

'장마 끝! 폭염 시작!'이라는 말에 속으며 언제 또 내릴지 모르는 비에 불안해하던 8월, 실로 오랜만에 해가 반짝한 날

사간동 9번지를 찾았다.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의 여느 곳과 달리,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조그만 골목들을 지나 반쯤 열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담한 한옥이 한 채 자리하고 있다. 버선발로 반겨준다는 말처럼 신발에 발을 대충 구겨 넣고, 사간동 9번지의 주인인 나정원이 시원한 대청마루로 안내했다. 집 안 곳곳을 구경하던 중 드르륵 미닫이문을 열고 게스트 하우스를 같이 꾸리고 있는 김세희가 나왔다. 그렇게 에디터는 나정원, 김세희와 바닥에 가부좌를 하고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사실 휴가를 가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윤정일까지 셋이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단순히 '이 동네에 살아보자'라는 것에 뜻이 모아져 집을 알아보던 중 종로구청에서 계획하던 한옥 체험살이 사업과 맞물려 게스트 하우스까지 운영하고 있죠." 극작을 공부한 대학 동기인 이들이 사간동에 터를 잡게 된 이유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여러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한옥. 그래서 나정원은 한옥을 애원처럼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리한다고 해도 피는 곰팡이와 보수를 거듭해도 새는 물, 그리고 워낙 조용한 동네이다 보니 소음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며 한옥의

IN A JEONGWON

EDITOR
KIM HYEYOON

PHOTOGRAPHER
YIM MINCHEOL



Kim Se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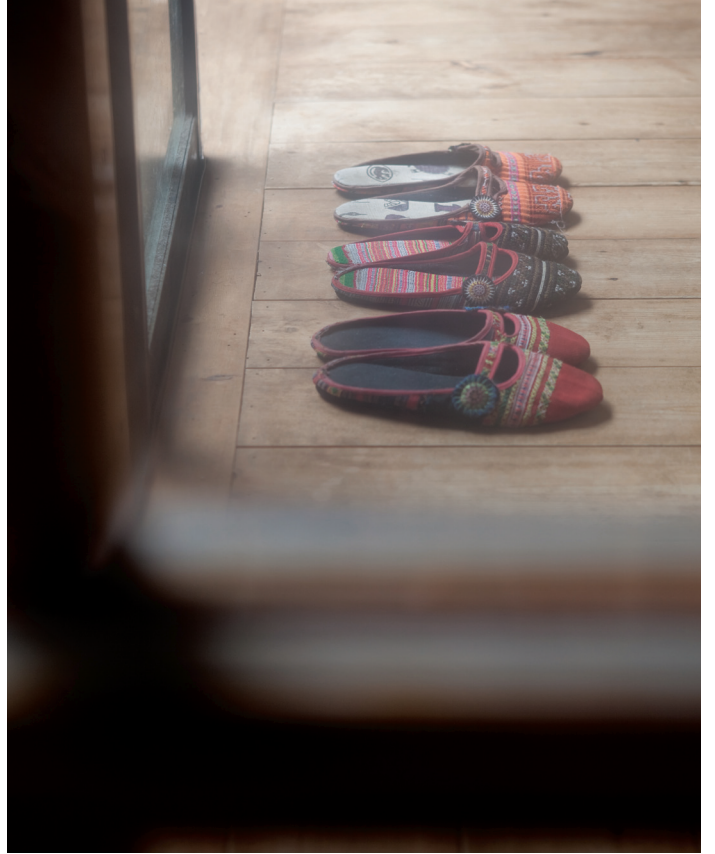
매력에 푹 빠져 살고 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 이 집에 와서 딱
눈에 띈 것이 마당과 기와지붕 너머로
보이는 네모난 하늘이었어요. 한마디로
스파르카가 된 거죠. 하지만 직접 살아보니
하나하나 직접 손질이 달아야 하는 곳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옥은
좋은 일, 나쁜 일, 귀찮은 일 등 여러
이야기가 담긴 곳이기엔 즐겁게 살고
있어요. 같이 하룻밤을 지내면 더
친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도
손님하고 인간적인 정을 나눌 수 있어
좋아요. 동네의 특성상 문화 혜택도
받고, 도시에서 천천히 살 수 있으니
금상첨화죠. 마당과 하늘을 벗 삼아
가깝게 들리는 빗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한옥에 대한 나정원의
생각이다.

이런 한옥의 정겨움과 매력은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고스란히
추억이 된다. 파자마 파티, 처녀 파티,
생일 파티, 프리포즈, 패션 피플의 론칭
뒤풀이까지. 자그마한 한옥에서
펼쳐지는 행사는 무궁무진하다. 기억에
남는 손님을 물으니 “프랑스에서 온 여자
두 분이 떠오르네요. 우리나라 연예인
사진이 프린팅된 양말을 신고, 한국
드라마 속 장소를 탐방하려고 온
거였어요. 같이 차도 마시러 갔는데,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저희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고
나서 한 달 후엔가? 프랑스에서 부는

한류 열풍이 뉴스에 나왔죠. 그분들 덕에
세계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된 것
같아요”라며 김세희가 미소를 지었다.

부엌은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최윤정이 전문적인
레시피를 바탕으로 음식을 만들고,
김세희는 엄마가 해주는 집음식을
조식으로 제공한다.

아무 곳이나 핀 들꽃을 화분에
꽂아두는 봄, 대청마루에서 수박을
먹노라면 에어컨이 필요 없는 여름,
네모난 하늘이 더욱 파래지는 가을,
마당에 동그랗게 쌓인 눈에 맥주를 넣어
이한치한의 한때를 보내는 겨울. 한옥에
살면서 이렇게 사계절을 온전히 즐길 수
있어 좋다는 이들. 그녀들의 다음 한옥
이야기는 어떨지 궁금해진다.



Choi Yuniung



Hanok in Modern

Life goes on under the centuries-old tile roofs. Hanok, or Korean traditional house, in the heart of city makes a perfect harmony with contemporary space.



01

EDITOR
WON JONGMYUNG

PHOTOGRAPHER
YIM MINCHEOL

COOPERATION
THE SHILLA SEOUL(2230-3321)

YEONGBINKWAN

우리 전통의 미가 살아 숨 쉬는 영빈관. 서울신라호텔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을 가미한 공간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국내 최고의 연회장이란 명성에 걸맞은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카펫 패턴에 전통 도자기 무늬를 응용하고, 전통 기와의 선이나 창살 패턴 등 전통적 요소를 그대로 살려 벽과 창에 적용했으며, 돌·나무·물·자연광 등의 소재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 느낌을 살린 점이 눈길을 끈다. 이곳의 백미는 모든 연회장의 문을 유리로 마감해 개방성을 확대하고, 자연광을 내부로 끌어들이 창살이 실내에 그림자로 비치는 입체적인 효과다. 특히 에메랄드홀로 올라가는 실내 계단을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콘셉트로 디자인해 잔잔한 물이 지나는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인 요소. 영빈관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피터 리미디우스Peter Remedios는 클래식한 전통 스타일을 재해석하고, 모던함과 미니멀리즘이 느껴지는 컨템퍼러리 디자인을 채택해, 영빈관 특유의 전통적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영빈관은 시대를 뛰어넘는 우아함과 격조가 느껴지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ontem- po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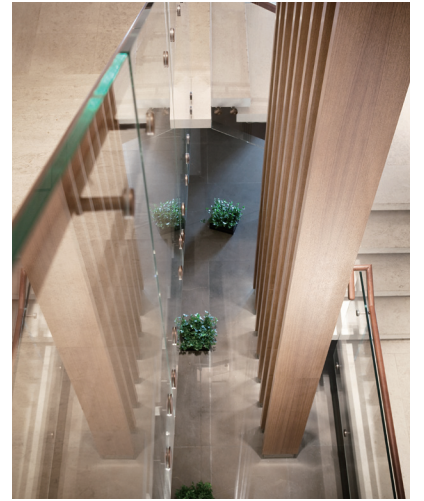
02





03

04



01

프라이빗한 행사 장소로 유명한
아늑한 분위기의 영빈관 내정

02

무형문화재 문기현 씨가 재현한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영빈관
내 폐백실

03

개방성을 확대하고 자연광을
수용하기 위해 유리로 마감한 문

04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플로팅
콘셉트 디자인의 실내 계단

05

전통미가 살아 있는 컨템퍼러리
클래식 디자인의 영빈관

05



special theme Space

01



02



01

대문을 뚫고 열고 들여다본
북촌 HRC

02

콘크리트 사무실이 아닌
전통이 깃든 직원들의 집무실

03

일에 대해 논의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쪽마루

04

흙을 밟고 다니는 북촌 HRC의
전경, 자목련·라일락·산수유
등 다양한 식물이 지란 화단은
직원들의 또 다른 휴식처다

05

평상에 오순도순 둘러앉아
회의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대청마루

06

나란히 열을 맞추고 기와를
받치고 있는 서까래





04

EDITOR
KIM HYEYOON

PHOTOGRAPHER
YIM MINCHEOL

BUCKCHON HRC

조그마한 골목이 정겨운 계동에 위치한 북촌 HRC는 '북촌 가꾸기 사업' 선두에서 가장 많은 공사를 해낸 전통 한옥 전문 건축 회사다. 한옥 전문 건축 회사니 거창한 리모델링을 했거니 생각하기 쉽겠지만, 북촌 HRC는 그야말로 한옥 리모델링의 '기본'에 충실한 공간이다. 7 자 한옥에 아래채를 두 채 둔 평범한 가정집을 사무실로 개조했다. 삶의 형태나 문화가 달라진 만큼 19세기나 20세기 초에 지은 한옥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북촌 HRC 김장권 대표의 지론이다. 그는 한옥집을 사무실로 개조하면서 가능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여백을 많이 두어 리모델링했다. 기둥, 보, 도리 등은 많이 상해서 교체했지만 서까래는 온전히 남겨두었다. 오래돼서 조금 비틀린 형태와 나뭇결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한 느낌이 좋았기 때문이다. 조금 비틀린 서까래의 나무, 담담하게 쌓여 있는 기왓장 등 오래된 한옥에서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함이 사무실 곳곳에 배어 있다. 문지방을 넘어 사무실에 들어서면, 다양한 식물이 자리한 마당과 직원들이 가꾸는 화단이 눈에 띈다. 시선을 양옆으로 돌리면 아래채가 두 채 있다. 이 아래채는 주로 사랑손님을 모시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직원들의 일터가 되었다. 서까래와 부연이 받치고 있는 기와 밑에서 일하는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안방과 마루가 있다. 집 가장 안쪽에 자리한 안방은 북촌 HRC 김장권 대표의 집무실이다. 널찍한 마루는 회의 및 건축 상담, 더불어 회식 장소, 영화 감상실, 휴게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업무뿐 아니라 직원들과 정을 나누는 장소인 것이다. 오래된 한옥을 새로이 변신시킬 때 북촌 HRC가 으뜸으로 여기는 점은 '어울림'이다. 형태와 쓰임에서 원형을 존중하되 공간의 기능에서 고정화되지 않은 자유로움과 주변을 배려한 공간. 북촌 HRC야말로 이런 어울림이 반영된 건강한 공간이 아닐까.

05



06



special theme Space

EDITOR
PARK SUMIN

PHOTOGRAPHER
YIM MINCHEOL

COOPERATION
SEOUL NAMSAN
TRADITIONAL THEATER
(2261-0512~5)

SEOUL NAMSAN TRADITIONAL THEATER

남산골한옥마을에 오롯이 자리한 서울남산국악당. 옛 조선 기와집의 모습을 한 그곳에는 살아 있는 국악의 향기가 퍼지고 있다. 서울남산국악당의 대문을 밀고 들어서면, 저 멀리 남산을 병풍으로 삼은 고즈넉한 기와집이 손님을 반긴다. 전통 한옥의 외관을 그대로 본떠 만든 공간은 옛 궁이나 서원처럼 정사각형 구조를 이룬 네 채의 기와집과 각종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소담한 안마당으로 꾸며졌다.

지난 2007년 11월, 처음으로 문을 연 서울남산국악당은 지상 1층, 지하 2층의 전통 한옥 건물에 음향과 조명, 무대 설비 등 공연을 위한 현대식 시설이 조화를 이룬 국악 전용 공연장이다. 지하에 자리한 330석 규모의 국악 공연장 내부는 전통 한옥의 나무 골격과 창틀, 천장의 모습을 버무려냈다. 액자형과 원형의 성격을 절충한 돌출 무대로 무대의 가변성을 높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깨끗하고 청명하게 울려 퍼지는 우리 전통의 소리는 마치 사랑방에 앉아 풍류를 즐기는 듯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공연장 바로 앞에는 탁 트인 통유리 너머로 썬큰정원Sunken Garden이 자리한다. 모던한 대리석이 깔린 지하 공간과 유려하게 뽀은 기와지붕, 높은 하늘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을 자랑한다. 썬큰정원은 지하 무대에도 효과적인 채광과 환기를 돕는 역할을 도맡는다.

공연장은 물론 강의연습실, 국악체험실, 카페 등 현대식 공간을 오밀조밀 품고 있는 서울남산국악당.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의 소리마저 하나의 음악이 되는 그곳에서 복잡한 도심을 잠시 잊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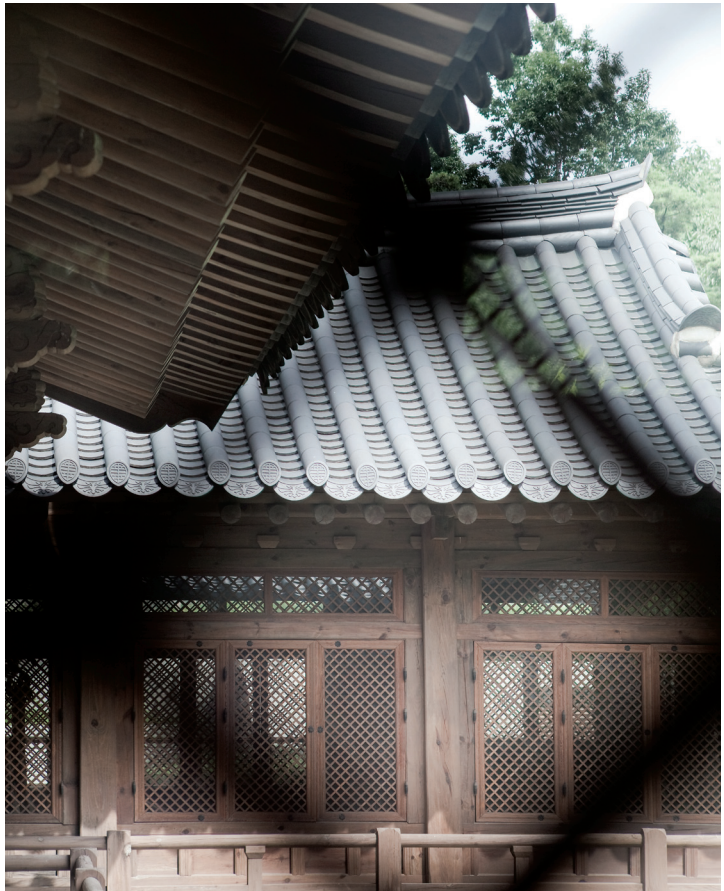


01

02



03





04



05

06



01

서울남산국악당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소담한 안마당이 손님을
반긴다

02

풍경 소리마저 하나의 음악이 되는
공간

03

전통 한옥의 고즈넉함이 느껴지는
서울남산국악당

04

서울남산국악당은 옛 조선
기와집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다

05

전통 한옥의 모습과 공연을 위한
최신식 시설이 조화를 이룬 국악
전용 공연장

06

복잡한 도심에 잊게 하는
서울남산국악당

07

서울남산국악당 마당에선 다양한
국악 놀이가 펼쳐진다

07

